

64호, 2007.1

여는 그림 / 창 씨뿌리는 사람 / 이윤엽 작가

책을 열며 / 이제부터 '평택 절대농지 미군골프장 불법전용 저지운동'을 해야 하나? / 임종철

기획1 / 아시아 태평양 반기지 동경회의 / 유영재

기획1 / 한반도의 관문이라는(gate way to) 이와쿠니 평화대회 보고서 / 강정구

기획1 / 아시아에서 미군총철폐를 주장하는 이와쿠니 국제집회 및 아시아공동행동 국제간사국회의 / 오미정

기획1 / 아시아태평양지역에 평화를!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을 반대한다 / 김종일

현장 / "호전하는 무리의 눈에는 요새로만 보이기 쉬운" 그곳, 제주 / 오미정

기획II 2006년 가을, 서울에서 평택을 이야기하다. 제1회 평화영화제 '백 더하기 백' / 황윤미

기획II / "평화를 택하라" 제1회 부천 평화카페 / 박숙경

기획II / 분단의 아픔을 통일의 기쁨으로' 인천평통사 DMZ 평화기행 다녀왔어요 / 이종일

기획II / 미군기지가 이땅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그 날을 염원하며 - 군산미군기지로 떠난 평화기행 / 유한경

기획II / 전북지역에 평화의 씨앗을 - 익산 통일노래한마당, 중국 역사기행, 평화학교 / 최성훈

기획II / 회원 한명 한명의 참여로 가꾸어 온 광주전남평통사의 2006년 한해 / 유한경

기획II / 안동시민학교와 해님이 행사, 금강산 기행까지 가장 활발한 회원 활동을 하는 안동평통사 / 오미정

| 여는 그림-窓 |

씨 뿌리는 사람 | 이운엽 작가

대추리에 살며 작품을 활동을 하는 이운엽 작가의 관화는

<http://antigizi.or.kr/sub/print/print.htm>에서 볼 수 있다.

이제부터 ‘평택 절대농지 미군골프장  
불법전용 저지운동’을 해야 하나?

공동대표 임종철

요즘 ‘때 아니게’ 이거나 ‘때 맞춰서’거나 시달리고 있는 게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담배 끊으라는 것. 또 다른 하나는 골프 치라는 것.

담배는 끊어야 한다. 어차피 새해 언젠가는 끊을 참이다. 한데 골프가 참 묘하다. 약사 후배들이 “형 나 골프 쳐도 돼요?”라고 물으면 “치든 말든 그건 네 일이지 내 일이 아니잖아?”라고 되묻곤 했다. 하지만 후배들은 골프를 시작한다는 게 왠지 걸리는 구석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골프장 반대운동에도 나서고 하는 임종철에게 물어보아야 풀릴 거라고들 생각했던 모양이다. 한데 이제 나 자신이 골프 추달을 받고 있다니...

사실 환경문제나 사회문제를 예외로 한다면 골프는 중년기 이후에 매우 건강에 좋은 운동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다.(어쭙~ 무슨 교수님 말투네?) 골프가 아시아게임 정식종목이기도 하니 골프가 좋다 나쁘다는 차치하자. 날더러 골프 치자는 친구들더러 말한다. “그래 골프가 좋아서 건강도 챙기고 우정도 챙기면 얼마나 좋겠냐? 한데 내가 골프 친다고 하면 업무골프가 닭달을 해 델 거다. 너희들하곤 시간을 못 내게 될 꺼다”라면서 웃고 만다. 나에게 다가온 골프이야기는 이쯤에서 접고...

참 반가운 뉴스. 인천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싸움이 시민사회의 승리로 가닥이 잡혀간다고 한다. 아직 미련을 못 버린 롯데건설이 제 욕심을 버리지 않아서 또다시 재연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여러 면에서 인천시민의 소중한 자연자원이 지켜지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니 반갑다. 얼마 전에는 케이블카 논쟁이 있었던 바로 그 산 아닌가. 사실 인천에 강화도나 섬에 있는 산들을 빼고 보면 육지에 계양산 말고 산다운 산이 없다고 할 터이니 인천시민들에게 계양산은 그 얼마나 소중한가.(문학산도 있다?)

시민사회와 건설업체, 땅장사에 눈이 벌건 정부투자기관들(00공사, ++공사 등등), 정부 사이에 벌어진 갈등에서 시민사회가 터무니없었던 적이 있었는지 과문(寡聞)이다. 핵폐기장의 경우는 굴업도, 안면도, 부안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술한 “안전하다”는 거짓말들로 국민을 우롱하면서 시민사회를 탄압해왔는지는 친하가 다 아는 일이다. 또 새만금 바다메꾸기(방조제라고? ‘바다 망치기’가 가장 딱 들어맞는 표현 아닐는지?)와 관련한 시민사회와 당국 사이의 갈등은 어떤가. 이 또한 어거지에 어거지를 거듭하며 완력으로 밀어붙이고 있지 않은가. 그 어떤 명분도 “땅장사를 시민사회가 막는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철회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대안이 없지 않은가.

그런데 군사패권주의자들과 그에 부화뇌동하는 사대매국주의자들이 피눈물 나는 평택 팽성 대추리 도두리 그 소중한 논밭을 미군기지로 써야 한다는 궤변(詭辯)과 방패 총칼 억지 법을 동원하여 평화시위를 군사폭력 제도폭력으로 깨부수고 순박한 농민 김지태 이장을 감옥에 가두면서까지 밀어붙이는 속셈은 과연 무언가? 군사정치적 논리에 대해서는 우리 평통사를 포함한 시민사회에서 이미 글로 몸으로 항거하면서 “전면 재검토”를 주장해 온 바이니더 말할 필요도 없겠거니와 최근 미군기지 확장공사 시행계획을 늦춘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신문에 나온 그래픽 지도를 보고 비로소 알게 되었다. 대추리 도두리를 어떤 용도로 쓸 요량인지를 알게 된 것이다. “아항 역시나 그랬구나!”라고 말이다. 우리가 지난 60년간 익히 보아온 그 신물 나는 그 풍경 그대로 평택 미군기지를 만든다는 밀그림을 보게 된 것이다. (시행계획을 늦추는 이유에 관한 미국과 한국 당국자들이 내세운 이유들이 각각 어떤 다른 거짓말들인지에 관해서는 지면관계상 지적을 생략한다)

처음 미군 비행장 만든다고 쫓겨나면서 지계에 소쿠리에 행주치마에 흠이며 돌이며 피땀을 퍼다 날라 가며 습지를 메워 만든 대추리 도두리 옥토가 결국 미군아파트와 미군 골프장이란 말인가! 주한미군 숫자를 줄인다면서 거주공간은 늘린다는 게 참 어리둥절한 일이 아닌가? 머릿속에 풍경을 떠올려 본다. 사령부, 여단본부 아파트, 그리고 골프장과 레크레이션 구역... 다름 아닌 요즘 유행처럼 번져가는 고급 골프리조트 아닌가! 제길! 이제부터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운동’이 아니라 “평택 절대농지 미군골프장 불법전용 저지운동”으로 바뀌어야 되나?

‘부끄러운 미군문화 답사기’(다큐인포 지음)가 아니라도 우리는 익히 보아왔다. 미군기지 기지촌문화가 어떤 모습인지. 글썽 그 더러운 풍경을 문화라고 하면 ‘문화’라는 단어의 어격(사람에게 인격이 있듯이 말에는 어격 또는 언격이 있다)을 모욕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잠시 되짚어 본다. 조깅하는 군인, 길거리에서 주정부리는 군인, 여성을 희롱하는 군인, 어릴 때의 기억으로는 초콜릿 주면서 누나 데려오라는 군인... 객지에 나와 객고를 풀지 못해 힘들어하는 건전한 인간의 모습들은 아니다.

전쟁터 또는 낯선 곳으로 떠나보내는 미군 고위층으로서 자기 군인들에게 참으로 많은 배려를 해야 하고 그래서 최고로 해줄 수 있는 위안꺼리들을 만들어 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군대의 후진 막사들처럼 만들 수는 없을 지도 모른다. 미군 나름의 복지후생을 위해서는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 땅에 미군이 있다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도 없거니와 피땀으로 일군 농토를 빼앗아서 자기들 놀이터 만드는 건 더더욱 용서할 수 없다. 그런데 자기 국민의 농토를 빼앗아서 갖다 바치는 정부는 또 누구의 정부?

부글부글 끓지만 / 소리 지르지 않겠다 / C 라이트 밀즈처럼 / 들어라 양키들아! 라고/ 논증하지도 않겠다 // 다만, / 다만, / 다만, // 코리아반도 대한민국 경기도 평택시 / 팽성읍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로 하여금 / “미국놈덜, 그리고 대한미국놈덜”이라고 / 한서린 욕을 / 입이 담지 않게만 하라

(후략, 졸작시 “최소요구조건” 중에서)

‘아시아·태평양 반기지 동경회의’

사무처장 유영재

‘아시아태평양 반기지 동경회의’가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일본 도쿄 전수도회관(全水道會館)에서 열렸다. 아시아평화연합(APA) 재팬 등 일본 평화 관련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준비한 이번 회의는 2007년 3월 에콰도르에서 열리는 [세계반기지 네트워크 에콰도르 설립총회]를 향하여,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연대를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이 회의에는 주최국인 일본을 비롯하여 한국, 필리핀, 괌, 하와이, 호주, 오키나와의 활동가들 3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각 지역의 미군기지 재편·재배치 상황과 투쟁 현황을 공유하면서 연대활동의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대었다.

■ 평화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지역활동을 벌이는 일본

이와쿠니, 히로시마, 아즈키, 자마, 요코스카 등 미군기지가 강화 또는 확장되는 지역의 활동가들이 각 지역의 상황들을 보고하였다.

지난 해 3월, 주일미군 항공모함 탑재부대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투표의 압도적 승리 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와쿠니의 경우 단체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자마와 사가미하라 시 단체장 사이의 경쟁적 기지반대 활동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사가미하라 시의원은 미군기지와 무기들을 취재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활동을 하는 단체(www.rimpeace.or.jp)에 소속되어 있었다. 관광업을 활용하여 미군에게 평화 관련 메모와 부적이 들어있는 복주머니를 직접 전달하는 활동도 소개되었다. 미군의 성폭력 등 범죄에 대응하는 활동도 보고되었다.

일본측 보고의 특징은 각 지역에 뿌리박은 각종 단체들이 지역운동을 평화적인 방식으로 특색있고 성실하게 벌인다는 것이었다.

■ 지사 선거 패배의 무력감과 분노가 지배한 오키나와

회의가 열리기 얼마 전, 오키나와 지사 선거에서 미일 간 합의에 따라 주일미군 기지를 재편·강화하려는 중앙정부의 입장을 수용하는 자민당 후보가 승리하였다. 선거 패배가 가져다 준 무력감과 울분이 오키나와 반기지운동을 전개하는 활동가들을 지배하고 있었다. 활동가들은 선거 준비가 늦게 시작되었고, 선거운동이 잘 조직되지 못한 점을 패인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발표를 담당한 이시토미 히로시 씨는 다시 일어서겠다는 결의를 밝혀 장내를 숙연하게 했다.

600일 간의 처절하고도 험난한 헤노코 투쟁을 담은 영상 상영도 참가자들을 감동시켰다. 이 영상은 나츠메 목사를 중심으로 제작된 것인데 투쟁과정에서 폭행을 당하면서 연행되기도 하는 등 온 몸을 던져 투쟁을 이끄는 분이다. 오키나와를 방문했던 평통사 활동가들을 정성을 다해 안내하기도 했던 준수한 용모의 나츠메 목사를 동경에서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특히, 오키나와 활동가들이 미국 법률가들과 협력하여 헤노코 앞바다의 희귀동물인 듀공을

보호하기 위한 소송을 미국 법원에 내서 승소한 사실은 평택투쟁에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는 방식으로 여겨졌다.

#### ■ ‘자발적 연합’에 맞서 힘찬 투쟁을 벌이는 호주

존 하워드 총리 하에서 미군과의 군사적 긴밀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기지 건설, MD 참여, 이지스 구축함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마디로 ‘자발적 연합’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발표를 담당한 이는 ‘반기지연합(Australian Anti-Bases Campaign Coalition(AABCC), www.anti-bases.org)의 테니스 도허티 씨인데, 중학교 교사로서 매우 조용한 분이였다. 그런데 2005년 12월, 시드니로부터 버스로 43시간 떨어진 파인 갭(Pine Gap)기지로 침입해 들어가 건물 지붕 위를 점거하고 연좌시위를 벌였다. 이 기지는 전세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미국의 전쟁정보기지라고 한다. 또 최근에는 탈리스만 사브레(Talisman Sabre)라는 이름의 미-호주 전쟁게임에서 탱크의 이동을 몇 시간이나 지연시키는 등 이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2007년 6월에 다시 이 훈련이 전개되는데, 1주일 동안 대규모 시위를 열 계획이라면서 연대를 요청했다. 이들은 미군기지 폐쇄, 태평양안전보장(ANZUS)조약 폐기, MD반대, 군비축소, 아시아·태평양 비핵지대화 등을 위해 투쟁하고 있었다.

#### ■ 해병대 8천 명 재배치에 항의하는 구아한(Guahan)

‘미국령 괌(Guam)’으로 알려져 있는 서태평양 마리아나 제도의 최대 섬(면적 166만평, 인구 16만명)에 대하여 현지 원주민인 차모로족은 미국의 식민지로 인식하고 있다. 그들은 섬의 이름도 원래대로 ‘구아한(Guahan)으로 부르고 있다. 현지 반기지 운동단체인 차모로 네이션의 리사 나티비다드(Lisa Natividad) 씨는 미군으로 인한 환경오염, 교통문제 등이 심각한 가운데, 반기지 활동가들이 오키나와 해병대 8천여 명을 구아한으로 재배치하려는 미국의 계획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해병대 재배치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지만 구아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리사 씨는 구아한의 해병대 재배치 반대투쟁에 연대해 줄 것을 호소하면서 평택과 오키나와의 동영상을 구아한에서도 상영하면 좋겠다는 요청을 하였다. 회의 참가자들은 평통사의 6차 SPI저지 괌 원정투쟁에 차모로 네이션이 적극 연대했다고 소개하자 격려의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 ■ 3천만평 기지 확장 직면한 ‘문어의 머리’, 하와이

카일 카지히로(Kyle Kajihiro) 씨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독립국가였던 하와이는 19세기말 미국의 강점으로 군사기지화 되었다. 현재 미국은 하와이 전체면적의 5.7%에서 161개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하와이 원주민은 자신의 땅에서 최악의 사회적 지위와 가장 높은 비율의 거주지 상실, 가난, 질병, 투옥, 그리고 가장 낮은 비율의 교육적 성취와 평균 수명을 갖고 있다. 또한 미국 군대는 800개가 넘는 군사 오염구역을 만들어 냈다.

1976년 9명의 활동가 그룹이 Kaho'olawe섬에서 해군 폭격에 저항하여 승리를 쟁취한 이래 수많은 투쟁이 그 뒤를 이었다. 그 조직적 결과로 DMZ-Hawaii/Aloha 'Aina라고 불리우는 군사화에 저항하는 공동체들의 네트워크가 꾸려졌다.

‘문어의 머리’라는 표현은 하와이 원주민 학자이자 활동가인 Kaleikoa kaeo씨가 만들어 낸

말인데, 하와이가 태평양에서 미국의 군사시스템의 핵심으로서 괴물같은 군사적 문어(he'e)의 머리가 되어 왔다는 의미로 쓰고 있다. 현재, 하와이는 2차대전 이래 가장 큰 군사적 확장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은 스트라이커여단을 하와이에 주둔시키기 위해 2만 5천여 에이커(약 3천만 평)를 확장하려 하고 있다. 카일 씨는 미국의 군사기지의 제국화는 세계적 문제라면서 그에 대한 저항도 세계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평택 등의 투쟁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면서 한국과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환경문제 관계자를 초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 ■ 세계 반기지 투쟁의 중심 사안, 평택

민주노총의 강철웅 대협실장, 참여연대의 박정은 평화군축팀장, 녹색연합의 윤기돈 녹색평화국장, 유영재 평통사 사무처장, 고유경 평택범대위 국제연대부장은 각 조직의 활동 결과 및 계획을 보고하고,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 대응, 미의회와 시민사회 대응, 환경 및 여성문제 연대 등의 사업을 제안하였다.

평택투쟁은 오키나와, 비에케스, 만타(만타는 에콰도르 수도인 키토 남쪽 260km 지점의 해안도시로 미국이 10년간 공군기지로 임대하여 마약밀수 단속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임. 2007년 에콰도르 총회 장소이기도 함. 이번 대선에서 새로 선출된 라파엘 코레아 후보가 2009년으로 만료되는 임대 기간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음.)와 함께 아시아태평양지역은 물론 반기지투쟁의 세계적 관심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조직책임자인 코라손 발테즈 파브로스 여사가 소개한 에콰도르 회의의 주요 내용에 평택투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그 근거다.

#### ■ 국제공동행동의 모색 및 계획

참가자들은 전략회의를 통하여 정보의 공유, 자료의 분석, 행동계획 캘린더 작성, 미국과 자국정부,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공동행동을 제안 또는 추진키로 하였다. 특히, 각 지역과 단체들이 에콰도르 총회 참가문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고, 총회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포럼 개최를 추진하자는 데 공감하였다.

#### 쭈‘외국군 기지의 철폐를 위한 2007 에콰도르 국제회의’ 참가 관련

- 2007년 3월 5일~9일 에콰도르 키토(에콰도르 수도), 만타에서 열림. 3월 5일~7일 국제회의, 8일~9일 행진과 집회
-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NATO 등 해외 군기지 문제에 대해 활동하는 세계 각지 사람들 약 200여명이 참가하여 전체 워크샵, 주제별, 지역별 워크샵, 키토에서 만타까지 행진과 집회 등이 예정되어 있음.
- 주최측의 요청사항 : 평택 등 한국의 미군기지 문제에 대해 알릴 수 있는 활동가의 참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미국의 군사전략과 이에 대한 대응 등 지역별, 주제별 워크샵 조직 및 참가, 평택 영상 상영,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발언 등
- 미군의 글로벌화에 맞서 반기지운동의 국제연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국제연대의 빈도도 잦아지고 있음.
- ‘외국군 기지의 철폐를 위한 2007 에콰도르 국제회의’는 그 노력의 일환임. 이런 점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대규모 국제반기지 네트워크 설립 총회는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쭉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 국제공동행동 제안

- RSOI는 한미연합사의 주장과는 달리 침략적 전쟁연습으로서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 하와이, 괌, 오키나와 등의 미군이 동원되는 전쟁연습임.
- RSOI에 대한 국제적인 반대투쟁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연습에 대한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한미양국에 상당한 부담으로 될 것임.
- 이 투쟁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작전계획 작성과 전쟁연습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 이에 일본과 오키나와의 유엔사 후방기지(요코스카, 자마, 사세보, 요코다, 가테나, 후텐마, 화이트 비치) 7곳을 비롯한 RSOI와 관련된 아시아태평양 각 지역이 준비정도와 실정에 맞게 공동행동을 벌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국제공동행동을 하게 될 경우 평통사가 이를 주로 기획하고 주도해야 할 것임.

#### ■ <대추리 전쟁>, “한국경찰청이 상영금지한 다큐멘터리, 일본 최초 상영”

한편, 25일 저녁에 열린 <대추리전쟁> 영화 상영과 공개포럼에는 약 150여명이 참가했다. <대추리전쟁>을 보면서 여러 참석자들이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여러 지역에서 영화를 상영하기를 바라는 요청이 있었다. <대추리전쟁> 홍보 전단에는 “한국경찰청이 상영 금지한 다큐멘터리, 일본 최초 상영”이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대추리전쟁> 상영을 위한 서울평통사의 투쟁이 이 영화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음을 엿보게 했다. 또한, 무건리훈련장백지화대책위원회가 만든 스티커를 전달하면서 무건리가 제2의 평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소개하고 관심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각 지역과 나라들의 활동가들이 한국의 반기지운동에 대한 기대와 존경이 높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평통사의 활동이 선도적이고 의미있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통사의 활동이 세계 반기지운동에서도 그 내용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만큼 옳은 방향과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하며, 평통사 활동을 잘 정리해서 효과적으로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다른 지역운동과의 정보와 경험의 교류가 중요하고 미군의 세계화에 맞서 반기지운동의 국제연대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 한반도의 관문이라는(gate way to) 이와쿠니 평화대회 보고서

평화통일연구소장 강정구

지난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일본 남서부 히로시마 옆 조그만 도시 이와쿠니에서(인구 10만 정도) 열리는 일본평화위원회 주관 '2006일본평화회의'에 참석했다. 일본평화회의는 약 30년의 역사를 가진 평화행사로 주로 미군기지 철거와 미국에 의한 세계평화위협에 대처를 모색하는 것을 중심 내용으로 한다. 평화회의는 미군기지가 있는 지역에서 매년 열리며, 작년에는 가나자와, 올해는 이와쿠니, 내년에는 오키나와 등과 같이 순회하면서 일본 전역에 걸친 각 지역의 평화운동단체나 일본평화위원회 지회 요원, 관심 있는 일본인 등이 참석한다. 국제심포지엄, 부문별 지역별 토론회, 개막식 겸 중앙과 지역의 평화활동 보고, 시위, 해당 지역 미군기지 순방 등 다채로운 행사가 뒤따른다.

### 격식과 형식이 엄격한 일본평화회의

첫날 기자회견에서부터 끝나는 날까지 아주 빠박한 계획아래 진행되기에 무척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했다. 또 각 일정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한 사전 설명이 부족해 본 국제대회 외에는 별로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짧은 발표를 해야 하고, 청중들의 질문이 떨어지자 마자 즉답을 해야 하기에, 그것도 영어로 해야 하기에 결코 녹록한 회의는 아니었다.

국제회의는 각국의 미군기지 반대투쟁 체험을 소개하면서 그것이 지역 평화 만들기에 가지는 의미와 정보교환, 각국의 미군기지 현황 등을 서로 알리고 이해시키면서 국제적인 연대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주로 통역과 번역문제 때문에 발표시간과 원고 내용이 완전히 자료집 내용과 일치해야 하는 굉장히 엄격한 형식성을 갖추고 있는 게 특징이어서 인사말까지도 원고에 포함되어야 했다. 나는 원고분량이 많아 이를 중간에 수정해야 하지만 이런 형식 엄격성 때문에 통역사들과 몇 번이나 접촉해야 했었다.

### 국제연대의 유용성

미국 워싱턴 주 올림피아시티에서 온 대표는 그곳 시의원으로서 반핵도시를 시 차원에서 전개하는데 핵잠수함이나 군함이 그곳 해안에 입항하는 반대운동, 무기제조업과 거래하는 기업 불매운동 등 풀뿌리 운동을 소개해 미국에서도 그런 운동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또 민주당도 다음 회기에 약 700억 달러의 국방비 증액에 동의하고 있어 무려 5,100억 달러가 될 것이고 힐러리나 고아 역시 군비증강론자이며, 군산복합체 의존의 경제체제를 환경생태계 개발전략으로 바꿔 경제적 출구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지구촌의 군사화를 막는 방향을 생각하자는 제안이 설득력 있었다.

괌의 테비 키나타 대표는 단지 관광지로만 알려졌던 괌의 미군기지 현황과 이 때문에 겪는 원주민의 형극, 인구 6만 원주민 가운데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이라크전쟁에 참전해 벌써 11번째 괌의 젊은이가 희생되어 인구비례 세계 최대희생자라는 그녀의 말에, 또 미국의 괌 점령 일을 미국이 자기들 멋대로 국경일, 곧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미국이 괌을 해방시켰다는 해방 기념일로 정해 놓은 것을 빗대어 그녀는 해방일이 아니라 再(재)식민의 날이라고 하기에 나는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또한 괌에서 진행되고 있는 림팩훈련 등에 관한 정보를 동

아시아 각국 평화세력이 공유하는 네트워크 창설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일본의 경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미일일체화 현황과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고 발표자 니히라 선생 역시 젊었을 때부터 일미관계 연구로 잔뼈가 굵어 온 분이었다. 일본청중들의 평택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았다. 평택기지가 1943년 일본제국 주위가 아시아-태평양 전쟁을 위해 우리 평택 농민들을 내쫓고, 1950년대는 미국제국주의가 한국전쟁을 위해 다시 내쫓고, 이제 21세기에는 또 다른 전쟁을 위해 미국이 일본과 짜고 세 번째 내쫓으려 한다면서, 그 전쟁은 아마도 제2의 한국전쟁이나 제2의 청일전쟁 재판이 될 것 같아 바로 일본이 전쟁 하위동맹자로서 참가하기 위해 일체화니 기지 재조정 등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다음 날 자유토론회 기조연설에 나는 평화와 인권이라는 소주제로 20분간 이야기하면서 당신들이 북한인권에 관심이 많지만, 사회-경제권과(A규약)과 자유-시민권(B규약)으로 한정된 유엔의 인권협약의 한계와 더구나 미국의 인권은 A규약을 배제한 B 규약 전횡의 나 홀로 인권에 불과하며, 인권에 핵심인 생명평화권을 유엔 협약의 가장 중요한 인권범주로 삼을 것을 국제적인 의제로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의 핵심인 생명권 외면에 각성을 촉구하는 문제점을 강조하자 일부 청중들이 박수로 호응해 주고, 토론회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에 관심을 보여 주었다.

한반도와 중국전쟁의 관문으로 대 확장을 시도하는 이와쿠니 미군기지

뛰니 뛰니 해도 이와쿠니 미군기지 현장방문이 의미 깊었다. 한국과는 달리 비록 멀기는 하지만 밖에서 기지 속을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망원경 등을 통해 안쪽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한반도와 300km 밖에 떨어지지 않아 한반도 전쟁에 그야말로 관문역할을 하는 기지이기에 EP-3 등의 정찰기와 수많은 탄약고 이 가운데 제일 위험한 무기를 비치하고 있다는 오렌지색의 1번 격납고는 아마 핵무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말에 긴장이 고조되었다. 바다를 매립해 확장공사가 대대적으로 펼쳐지고, 매립할 흙을 주위의 산 하나를 몽개서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흙을 나르는 모습은 확장공사 규모가 엄청나다는 것을 직감케 했다.

특히 일본인들은 미군기지내의 학교, 골프장, 편의시설 등이 일본 표준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고 일본 돈을 투입해 미국기준에 맞춰 지워주었다는 차별의식에 분개하는 모습이었고 해설자는 이 점을 강조했다. 또 미군기지가 확장되면 소음과 비행 때문에 근처에 있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미야지마 신사가 훼손된다는 점을 강조해 주민투표나 반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었다. 전쟁 등의 거시적인 문제점 못지않게 미시적인 대중의 삶에 미치는 문제점을 거론하는 것은 민중을 설득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에 설득력 있는 것 같았다. 그 결과 시민 89%가 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결과를 주민투표에서 보여 주었다.

현재 5709헥타르로의 이와쿠니 미해병대 항공기지에는 FA18호넷 전투공격기 36기, EA6B 프라우라 전자전기, AV8B해리어 공격기, EP-3 등 60기, 해병 병력 3천이(군속과 가족을 합치면 5천3백) 배치·주둔하고 있다 한다. 여기에다 2009년까지 기지가 확장되면 도쿄 인근 아즈기 해군기지에 있는 항모 적재 전투기 57대와 미군 병력 1600명이 옮겨 온다. 지금 이곳에 배치된 해상 자위대 E/O/UP-3 비행대와 다른 항공기는 아즈기 기지로 이주해 이와쿠니는 완전히 미군기지 전용이 된다.

이 경우 항공모함 함재기 NLP(야간이착륙훈련)동안의 초저공비행으로 소음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주민들은 우려한다. ‘중간보고’라는 이름의 ‘일·미 동맹 : 미래를 위한 변혁과 재편’에

는 ‘모든 미 해군과 미 해병대 항공기의 충분한 즉응성 수준 유지를 확보하기 위한 훈련 공역’을 조정하고 ‘항공모함 함재기 이착륙 훈련을 위한 항상적인 훈련시설(F C L P =Field-carrier landing practice)’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한다.

소수화와 고립화된 일본 풀뿌리 운동을 거울삼아야

이들이 모두 한반도와 중국과의 전쟁 대비용이기에 그들 일본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문제 더 나아가 동아시아 전체의 문제라는 점이 연상되면서 제2의 평택기지 확장을 보는 느낌이었다. 이는 자연적으로 괌, 오키나와, 일본, 한반도, 필리핀, 대만, 중국 등의 반전평화연대의 필요성을 귀착되기 마련이다. 이번 평화대회 참석에서 여기에 대한 희망을 보면서도 동시에 일본 운동세력이 비록 풀뿌리 운동에는 상당한 수준이지만 그야말로 고립화되고 소수자에 그치는 한계를 직시하게 되니 마음이 무거워진다.

비록 우리는 일본처럼 풀뿌리 세력화에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면에서 약할지 모르나 중앙 차원에서나 대중 동원 차원에서 일본을 능가하여 사회 전체적인 영향력이나 파급효과는 우리가 앞선다고 나는 평가했다. 우리에게나 일본청중에게 고민꺼리를 던져 준 셈이고 우리 모두 이 문제와 씨름을 해야만 할 것 같다.

아시아에서 미군 총철수를 주장하는  
이와쿠니 국제집회 및 아시아공동행동(AWC) 국제간사국회의

홍보국장 오미정

2006년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일본 이와쿠니에서 ‘아시아에서 미군 총 철수를 요구하는 국제집회’가 아시아공동행동(AWC) 주최로 열렸다. 집회 후에는 AWC 국제 간사국 회의(CCB)도 있었다.

이틀에 걸쳐 열린 이와쿠니 국제집회는 한국, 미국, 필리핀, 대만, 인도네시아 등 외국 참가자들과 가나카와, 이와쿠니, 오키나와 등 일본의 각 지역에서 반기지활동을 하는 활동가들과 노동자들 약 200여명이 참가하였다. 집회는 첫째날의 분과회의 토론회와 둘째날의 실내 집회, 가두 행진으로 이어졌다. 한국의 집회(실외에서)와는 사뭇 다른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의 집회가 인상적이었다. 일본 곳곳에서 반기지 활동에 나서는 노동자들의 구체적 실천 보고를 들으면서 노동자들의 평화운동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인식하기도 하였다.

국제 간사국 회의에서는 각 나라의 현상황을 소개하고 공동 투쟁과 연대 활동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국보고는 허영구 대표가 하였으며, 평통사는 평택 투쟁을 중심으로 보고를 하였다.

대만 노동인권협회의 탕슈는 천수예벤 총통의 비리 스캔들로 인한 민중들의 총통퇴진 운동을 소개하며 노동인권협회는 이 운동을 미국 무기수입 반대운동으로 조직화 하는 활동을 소개하였다. 미국의 군수산업이 천수예벤 총통을 비호한 이유는 정치상황이 안정되어 빨리 무기구입예산안이 통과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비리반대, 무기구입 반대’라는 구호로 비리와 무기구입의 관련성을 민중들에게 폭로하는 활동이 활발히 벌여 나가면서 2008년 총통선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인도네시아의 문화활동가네트워크(JKB)의 안드레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빈곤의 확산과 종교 분쟁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부시의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 지지해 나가고 미국은 인도네시아의 반테러부대 육성을 위한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내의 이슬람 세력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고 한다.

미국 ANSWER 연합(전쟁과 인종 차별을 저지하기 위해 지금 행동하자)의 새라 슬로언은 북미간의 대립이 격화되는 것을 우려하며 ‘새로운 한국전쟁을 반대한다’는 보고를 하였다. ANSWER의 최근 활동에 대해서는 레바논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반대하는 것, 쿠바 및 베네수엘라와 연대하는 것, 한미 FTA 에 반대하는 것, 이민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시위 등을 소개하였다.

일본은 국우 세력인 아베신조의 수상 취임 이후 교육기본법 개악, 평화헌법 개악에 저항하는 활동을 보고하였다. 주일미군재편과 기지 강화 반대, 미군 철수 등의 반전 평화운동, ‘헌법 9조 개악을 저지하는 아시아 메시지 프로젝트’ 운동, 일본정부와 독점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아시아 민중에 대한 경제지배 반대 투쟁, 국제 연대운동의 강화 등이 일본

AWC의 주요한 활동 목표로 소개되었다.

필리핀 신민족주의자동맹(BAYAN)의 보엣드는 아로요 정권이 자행하는 정치 살인 중단 운동을 주요하게 소개하였다. 91년 미군 철수 이후 아로요 정권은 외국군의 기지와 군대를 주둔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군사지원을 늘리고 있으며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대규모 연합 훈련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필리핀 민중들의 치열한 반대 투쟁을 소개하였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평화를!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을 반대한다!

협동사무처장 김종일

필자는 APWSL(Asia Pacific workers solidarity League) 한국위원회의 제안을 받고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열리는 국제연대회의에 참가하게 되었다. 특히 ASEAN 정상회담 개최에 반대하여 열리는 국제회의이면서 회의 중간에 시위가 결합되어 있어서 그런지 더욱 흥미를 느꼈다.

주최 측에서는 필자에게 평택 미군기지 관련 투쟁사례를 발표해달라고 요청을 해왔다. 발표할 영문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참가자들에게 나눠줄 평택지킴이 버튼과 평택투쟁 상징 깃발을 준비하였다. 팽성주민대책위에서 준비해준 상징 깃발에는 “Pyongtaek for Peace”가 적혀 있었다.

출발 전날 APWSL 한국위원회 간사로부터 현지 사정을 간략하게 전해 들었다. 현지 정세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 대회 진행이 어수선했을 수 있다는 것, 통역이 어떤 수준인지 가늠이 어렵다는 것 등이었다. 필자는 그런 상황이해에 기초하여 필리핀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를 인터넷에서 미리 파악해두는 한편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전자사전을 준비해서 출국하였다.

- 필리핀은 어떤 나라인가?

국명은 필리핀 공화국(Republic of the Philippines)이고 6년 단임의 대통령제 나라이다. 면적은 한반도의 1.3배이고 7천여 섬으로 이루어졌으며 인구는 8천만 명이 넘는다. 기후는 전반적으로 고온다습한 아열대성 기후(연평균 27℃)이며 건기(12-4월)와 우기(5-11월)로 나뉜다. 태풍·지진·화산 등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곳이다.

특히 외세의 지배를 많이 받았던 나라로서 스페인(1571~1898), 미국(1898~1946) 일본(1942~1945)의 식민지 통치를 겪었다.

남부지역에는 반군인 모로 민족해방전선(Moro National Liberation Front), 모로 이슬람 해방전선(Moro Islamic Liberation Front), Abu Sayyaf Group, NPA 등이 있다. 모로 민족해방전선(Moro National Liberation Front)은 1996년에 필리핀 정부와의 평화협정 체결로 민족해방전선 대원들은 대부분 정부군과 경찰 등으로 편입되었으나 아직도 일부 세력이 남아 정부군에 저항 중이다. 모로 이슬람해방전선(Moro Islamic Liberation Front)은 민족해방전선 내분결과 1979년 민족해방전선에서 이탈하여 창설되었다. 이슬람지역 내 완전독립과 정부수립을 주장하며 정부와 민족해방전선 간에 체결된 평화협정에 반발하고 있다. 2001년 필리핀 정부와 정전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정부군과 이슬람해방전선 간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2003년부터 양 측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이슬람해방전선 세력은 약 12,000명으로 추산된다.

Abu Sayyaf Group은 남부 민다나오에 이슬람국가 건설을 목표로 1991년 창설된 단체인데,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단체로 지정되었다. 2002년 5개월 동안 Abu Sayyaf 반군소탕을 위한 필·미 연합 군사작전으로 세력이 크게 위축되었으나 최근 본거지를 Sulu 지역으로 이동, 현지 이슬람 반군세력과 합세하여 조직을 재정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력은 약

1,500명 정도로 추산된다.

공산 반군으로 NPA(New People's Army)가 있다. NPA는 1968년 모택동주의 필리핀공산당 재건 직후 Jose Sison이 공산당의 무장조직으로 결성하였다. 1980년대 중반 크게 세력을 확장 전국의 약 1/4을 장악하고 1987년 25,000명까지 세력을 확장한 바 있다. 1985년 말 북부 마닐라근교 수도권지역에서는 도시게릴라부대 ABB(Alex Boncayao Brigade)가 대정부 전복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1991년 철저한 무장투쟁을 주장하는 키타나르 사령관 체포 이후 라모스 정부의 사면과 회유로 세력이 감소되어 남부 Luzon섬 산간지방을 중심으로 소규모 병력만 유지했으나 최근 아로요 대통령이 Abu Sayyaf 등 이슬람 반군문제에 전념하는 사이 세력을 확대, 현재 12,000명까지 늘어났다. NPA는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단체로 지정되었다.

통일전선조직으로는 NDF(National Democratic Front)와 Bayan(필리핀 말로 '민족')이 있다. NDF는 주로 급진 진보정당 등이 가입해있는 비합법조직이고 Bayan은 진보적인 노동자조직인 KMU와 농민조직인 KMP 등이 가입하여 활동하는 합법조직이다.

NDF는 공산당 계열의 통일전선조직으로 1973년 창설되어 NPA의 정치기구 역할을 주로 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1992년 이래 네델란드에 망명해 있는 NDF 지도자 Jose Sison의 귀국을 중용하면서 회유하는 한편 NDF와의 평화협상을 진행하여 1995년 화해 선언을 채택하였다. 라모스 정부는 1998년 NDF와 '인권 및 인도 국제법 존중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였으나 적대행위의 전면중단 등 본격적인 평화협정은 체결하지 못했다. 2001년 아로요 정부 출범 이후 평화협상이 진행 중이나 NDF 측의 NPA 및 Jose Sison에 대한 테러단체·테러리스트 지정 해제 요구를 필리핀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협상이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 - 12월 7-8일, 'Jobs and Justice' conference

12월 8일, 세부에 있는 카톨릭 계열 대학인 STC(Saint Terresa College) 시청각실에서 'Jobs and Justice' conference가 열렸다. 7일에 이어 이틀간 열렸다. 필자가 참여하기로 되어있던 conference는 아니었지만 주제가 흥미로워 참관하였다.

20여 나라 120여명의 활동가들이 참가하여 각국의 정세 및 주요 노동운동 현황과 사례 등을 발표하고 자유토론 등을 진행하였다. 전날에는 저녁식사 후 행진과 시위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야간에 집회시위가 금지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과 비교되었다. 참가하지는 못했지만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시위를 축제처럼 진행했다고 한다.

12월 8일에는 3가지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비정규직 조직화, 고용안정과 임금 및 민주적 기본권 쟁취 노동자투쟁, 여성노동자와 농업노동자 및 이주노동자 투쟁 등이 다루어졌다.

남한 대표로 참석한 비정규직연구소 김성희 소장의 '남한의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과 조직화 과제' 주제발표가 있었다. 그런데 통역이 문제였다. 사전에 통역을 하기로 한 친구가 주제발표 직전 발표문을 보더니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 통역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는 것이 아닌가. 곁에서 지켜본 필자도 적지 않게 당황 했다. 그는 필자의 통역도 담당해야 할 친구였기 때문이다. 하는 수 없이 김성희 소장이 직접 영어로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어렵사리 발표와 질의응답을 마치고 내려온 김성희 소장에게 필자는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는데 그래

도 참 잘했다”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 때부터 필자는 직접 발표하기로 작심을 하고 틈틈이 전자사전을 보면서 발표할 내용의 전개과정을 구상하고 영어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 지면을 통해 진심으로 김성희 소장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만일 김성희 소장이 통역문제로 먼저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 필자가 고3 수험생처럼 그토록 발표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날 밤 우리는 숙소 앞 노천카페에서 맥주 한잔씩 하며 뜨겁게 동지애를 나눴다.

- 12월 9-10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 군사주의와 테러와의 전쟁에 관한 국제회의’

12월 9-10일, 같은 대학 대강당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 군사주의와 테러와의 전쟁에 관한 국제회의’가 열렸다. 27개 나라 170여명의 활동가들이 참가하여 미국의 신군사전략과 자국의 반제, 반기지 투쟁사례를 공유하고 국제연대투쟁의 방향과 공동의 실천과제를 논의하였다.

참가국은 북미에서 캐나다와 미국, 유럽에서 노르웨이, 중동에서 팔레스타인, 오세아니아에서 뉴질랜드와 호주, 아프리카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시아에서 싱가포르, 네팔, 몽고, 홍콩, 중국, 타이완,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태국, 파키스탄, 일본, 오키나와, 남, 북한 등이었다.

회의의 주요 주제는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과 군사의제’, ‘동남아시아에서의 테러와의 전쟁’, ‘동북아시아에서의 테러와의 전쟁’, ‘서남아시아에서의 테러와의 전쟁’ ‘미군기지와 미군출입협정’, ‘군사주의와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다.

북한 대표는 12월 9일, 동북아시아의 테러와의 전쟁을 발표했고 필자는 12월 10일 평택투쟁 사례를 발표했다. 북한 대표 2명은 평양에서 왔다고 했다. 그들은 ‘세계인민을 위한 국제연대성 조선위원회’ 소속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필자는 너무나 반가웠다. 이국땅에서 그것도 ‘한반도의 평화와 아시아, 세계 평화’를 논하고 공동 실천과제를 모색하는 자리에서 만났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 한번 상상해보라.

12월 9일, 북한 대표는 동북아시아의 테러와의 전쟁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의 구체적인 실상을 날날이 폭로하는 한편, 소위 북핵문제로 지칭되는 한반도 위기상황의 배경과 본질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한반도 위기상황의 해법은 어렵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 베이징 공동성명에 언급된 포괄적 방안에 대하여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북·미가 동시이행을 하면 된다고 힘주어 강조하였다.

12월 10일, 필자는 평택투쟁사례를 발표하고 평택투쟁영상을 상영한 후 5개항의 국제연대 요청사항을 참가자들에게 제안하였다. 참가자들은 박수로 결의해주었다. 특히, 평택 영상을 상영하자 참가자 중 50여명 정도가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공감을 표시해 오히려 필자가 깊은 감동을 받았다. 영상이 끝난 후 필자가 했던 영어 정리말언 한마디를 소개한다.

“Pregnant women cannot give birth to without pains. Pyongyang struggle too sameness. For keep land of life & land of peace, we will struggle until victory. Only our persistent struggle guarantee for victory. Pyongyang US base expansion - it is hurt to Korean peninsula peace, Northeast asia peace, Asia peace & World peace. We are hope to your solidarity. North-Korea & South-Korea is one. You & I

is one. We are comrades. Comrade is 'Dong-ji' in Korean word. We are 'Dong-ji'."

12월 10일, 첫 번째 패널이 끝난 직후 시위행진을 하였다. STC 대학에서 세부 대통령 궁까지 행진을 하고 대통령 궁 앞에서 집회를 하였다. 행진 중 엄청난 폭우로 행진이 잠시 멈추기도 했지만 빗줄기가 가늘어지자 행진을 강행하였다. 약 2.5Km의 행진이 시작되자 점차 시위대가 늘어났다. 맨발의 어린이들과 주부들이 대형 칼라사진을 들고 행진에 참여하였다. 자세히 보니 필리핀 정부군에 의해서 피살된 가족들의 사진을 들고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너무 안타까웠다. Arroyo 대통령 집권 5년 동안 약 800명 가까이 피살되었다. 이틀에 한명꼴로 죽어간 것이다. 필리핀 운동가들은 일정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진전으로 운동가들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교묘한 탄압이 상쇄되는 현실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었다. 결국 민중의 단결된 투쟁만이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겠냐고 그들은 힘주어 말한다. 우리의 현실과 비교해서도 공감이 간다.

세부 대통령 궁 앞으로 행진하자 경찰들이 행진대열을 막아 나선다. 시위대 500여명에 경찰 50여명, 이 또한 우리 현실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적은 숫자로 막기 때문인지 경찰들은 M16으로 무장을 한 채 시위대를 맞이한다. 상당한 긴장감이 흘렀으나 많은 수의 해외 평화운동가들이 시위에 참여해서인지 경찰의 소극적 대응이 느껴진다. 끝내 민중들의 기세에 눌려 대통령 궁 앞 도로까지 경찰들이 밀려났다. 그러한 기세 때문인지 힘차게 집회가 진행되었다. 가난한 필리핀 민중들이 자연스럽게 집회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자신들의 고통스러운 현실과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 또한 매우 인상적이었다.

12월 10일 행사가 끝나고 각 나라 참가 대표들과 원탁회의를 가졌다. 이번 국제회의의 성과를 실천적으로 이어가자는 취지였다. 30여명의 각국 대표가 모여 2시간 여 토론 끝에 'Asia Pacific Anti US base Network'가 결성되었다. 향후 3년간의 정보 공유와 국제연대 실천을 도모한 후 조직적 수준을 높여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12월 11일, '동아시아와 오세아니아 협의' 회의

12월 11일, 세부 시내 민중교회에서 '동아시아와 오세아니아 협의' 회의가 열렸다. 행사는 ILPS(International League of Peoples' Struggle) 국제본부에서 주최하였다. ILPS는 Jose Sison이 결성한 반제투쟁기구이다.

10여 나라 100여명의 활동가들이 참가하여 세계적 차원의 반제투쟁의 흐름을 공유하고 특히 동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에서의 미 제국주의의 경제침탈과 전쟁 사례를 발표하고 국제연대투쟁의 방향과 공동 실천과제를 논의하였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행되는 행사임에도 참가자 모두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오전 간식시간 후 자리에 모이자 주최 측에서 검은 띠를 하나씩 나눠주며 "노동운동가 한사람이 방금 피살되었으니, 애도를 표하는 뜻에서 왼쪽 손목에 검은 띠를 묶고 행사에 참가해 달라"고 공지한다. 필리핀 정세가 얼마나 엄중하고 운동가들의 삶이 고난의 연속인지 잘 느낄 수 있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에 가슴이 미어졌다. 저녁에 내용을 확인해보니 더욱 가관이다. 사탕수수기계를 만드는 일본계 회사에서 부당 해고된 노동자 2명과 노조위원장이 회사 앞에서 부당해고에 항의해 시위를 하려는 첫날이었다. 회사 측에 사전에 공지했음에도 사복으로 자신의 신분을 위장한 군인들에 의해서 3명의 노동자가 백주대낮에 총을 맞은 것

이다. 그 자리에서 노조위원장은 즉사하고 나머지 2명의 노동자는 중태에 빠졌다 한다. 필자가 돌아오는 날 그들의 안부를 묻자 안타깝게도 곧 죽을 거라고 이야기한다.

현지 신문을 보니 연일 테러에 의해 희생당한 농민과 인권변호사 등에 관한 관련 기사가 주요 기사로 눈에 띄었다. 적어도 아로요 정권 치하 5년 동안 이들에 한명 꼴로 운동가들이 피살되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현실을 반영해서인지 전 날 있었던 시위행진에 시위대의 상당수가 'Stop Killing'이라 쓰인 티셔츠를 입고 참여했었다.

## ?국제연대 과정에서 느꼈던 교훈들

반제반미 국제연대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미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나라를 초월하여 반제반미 세력의 총단결이 절실하다. 세계 최강의 미 제국주의와 싸워 승리하는 길은 우리의 힘을 극대화하고 국제적 반미전선을 끊임없이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투쟁하는 길밖에 없다. 이를 위해 각 나라의 투쟁 상황을 공유하고 모범적인 투쟁사례들을 전파해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인 국제연대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우리의 투쟁만 앞세우기 보다는 각국의 투쟁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한다. 물론 우리의 당면 투쟁을 승리로 귀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민족민주운동 지도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깊이 절감하였다.

이번 행사 기간 중 Jose Sison의 두 차례 기조연설이 있었다. 30분짜리 기조연설을 영상과 자막을 통해 듣고 보았다. 왜, 필리핀 운동가들이 “베트남에는 호치민이 있고, 우리에게는 Jose Sison이 있다”라고 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Jose Sison의 두 차례 기조연설을 접하고 느낀 소감은 크게 3가지다. 그가 세계정세를 관통하고 있다는 것, 미 제국주의의 폐해에 대하여 정확히 진단하고 전략전술적 투쟁과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것, 오랜 투쟁 과정에서 단련되고 검증된 지도자란 점이다. 이는 비단 Jose Sison뿐 아니라 Bayan의장과 KMU의장 등 주요 운동 지도부를 직접 대하면서 알게 되었다. 필자는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 운동의 현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고, 과연 바람직한 지도자의 상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게 되었다.

운동가로서 끊임없는 자기혁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깨닫게 되었다.

국제연대회의 참여 직전 “필리핀 운동가들은 운동가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현실을 직접 접해보니 실감이 되었다. 필리핀 운동가들은 탄압의 표적이 되고 있고, 주요 지도부들은 끊임없이 살해위협까지 받고 있다. 주요 지도부들이 움직일 때 반드시 2명의 보디가드가 동행을 할 정도이다. 지도부들은 대부분 술을 마시지 않는다. 술 마시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니 ‘술을 마시면 긴급한 위기상황에서 대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란다. 늘 긴장하고 깨어있다는 이야기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회의와 행사 진행과정을 보니 지도부들이 민주적 여론수렴과정과 올바른 결론 도출과정에서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내용에 대한 총체적인 장악과 민주집중제의 체질화 수준이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우리도 필리핀 운동가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자.

| 현장 |

“호전(好戰)하는 무리의 눈에는  
요새로만 보이기 쉬운1)” 그 곳, 제주

홍보국장 오미정

매년 25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간다는 제주도 안덕 - 화순 지역은 신령의 산이라 불리는 산방산과 바다로 치달아가다 멈춘 거대 용암 용머리, 고운 모래가 유명한 화순해수욕장, 멀리 마라도와 가파도가 보이는 송악산이 있으며, 한국의 지리와 풍습을 최초로 유럽에 알렸다는 [하멜 표류기]의 하멜이 표착했던 곳으로 제주의 대표적 관광지이다.

이 지역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 해군의 집요한 작업이 시작된 것은 2001년 이었다. 주민들의 활발한 반대활동으로 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마저 화순항 문제 전면 재검토를 약속하며 잠잠해졌던 제주 해군기지 건설 건은 2005년 4월 해군이 재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시 불붙게 된다. 해군의 대대적이고 치밀한 홍보전과 일부 무기 매니아들의 적극적인 지지캠페인2)은 제주의 여론을 ‘찬성 우세’로 돌려 놓았고, 화순, 위미 등 해당 지역 주민들과 제주시민사회단체들은 다시 대책위를 꾸리며 해군기지 건설이 불러올 미래들을 경고하고 있다.

이글은 녹색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 집필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의견서’를 기초로 ‘제주도 군사기지반대도민대책위’ 고유기 집행위원장과와의 인터뷰를 재구성한 것이다. ‘의견서’는 평통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해군은 모두 8,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해안 매립을 포함하여 총 12만평 규모의 부지에 함정 20여척이 계류할 수 있는 1,950m의 부두를 건설하여 1개 기동전단 및 2개 잠수함전대를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모로는 2006년 6월에 완성된 부산 작전기지(제3함대사령부)과 비슷하거나 더 큰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도민대책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지역 언론들과 함께 1함대가 있는 동해시와 2함대가 있는 평택시, 3함대의 부산과 잠수함기지가 있는 진해를 다녀왔습니다. 부산작전기지는 모두 5,200억원이 투자되었다고 하고 2,002m의 부두시설에 함정 30여척이 동시계류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언론에도 보도되었다시피 미국의 대형 항공모함도 계류가 가능하고요. 부지 규모도 12만평으로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완성한 부산작전기지도 있는데 왜 해군은 제주에 또 그와 비슷한 기지를 건설하려는 것입니까?

해군은 ‘제주 남방해역의 안정적 관리’와 ‘대형함 수용가능 기지 확보’를 들고 있습니다만 해양수송로 확보 문제는 이미 기존의 말라카 해협 외에 3개의 우회 해로가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KDX-III와 LPX 등의 대형함이 부산작전기지에서 출입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지를 건설해야만 하는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주 해군기지가 건설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당장은 제주도가 통째로 군사기지화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주에 해군기지가 건설되고 잠수함 전단이 들어오면, 무기고와 탄약고 등의 병참기지가 더불어 건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공군은 4,400여원을 들여 전략기지가 건설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혜의 절경을 가진 제주도가 군사기지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괌이나 하와이는 관광지로도 유명하지만, 미국의 군사전략적 요충지로도 유명합니다. 최근에는 미군 재배치 등으로 군사기지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 지적되어 왔듯이 제주 해군기지는 미국의 MD 체제 편입과 PSI 등 해양 패권을 위한 발판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해군은 제주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미 항모 전단이 입항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에 주로 배치된다는 이지스체계를 탑재한 KDX-III가 MD 용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죠.

그것 외에도 해안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주민 생존권 침해, 군사 문화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이 생깁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해군기지가 있는 도시들을 순회하면서 얻은 결론은 절대로 해군기지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해군기지가 있는 도시를 직접 보면서 느낀 점을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역의 독자적인 발전 역량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해군기지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20년, 30년 전에 해군기지가 만들어진 도시들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지역의 소비구조나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됐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도시들이 점점 커지다 보니 이제는 기지가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진해의 경우만 해도, 부산 신항만이 건설되면서 신항만 배후 도시로 커 가야 되는데, 해군기지 때문에 발전에 제약이 있는 거죠.

해군기지 건설이 경제 효과가 있다고 하는 해군의 거짓말은 직접 보고 들은 게 있는데, 바로 깨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위에서 제주해군기지를 미 해군이 주로 이용할 수 있다는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제주에 미 해군기지를 건설한다고 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반대 여론이 높겠지요. 하지만, 실상은 미 해군을 위한 기지나 마찬가지입니다. 미 해군은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공동사용 관련 합의각서만 체결하면 손쉽게 제주 해군기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해의 경우가 바로 그렇지요. 미 해군 잠수함들은 수시로 진해항에 들어와 휴식과 수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1998년에 서명 발효된 ‘한국 진해 해군부두에 대한 미 합중국의 공동사용 요청 관련 합의각서, SOFA 시설 및 구역 분과위 과제번호 3027’에 따르면 “정전시 해군부두는 본 합의각서에 제시된 절차에 의거 대한민국 해군에 의해 관리, 운영 및 유지될 것이다. 정전시 대한민국 해군이 해군부두의 주 사용자인 반면, 보 합의각서 제4조에 의거 설립된 부두합동조정

단의 월간 부두사용 일정회의를 통해 사용을 요청시, 미 합중국 선박에 사용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하 생략)”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우리 해군에 의해 관리, 유지되지만 필요시 미 해군에 사용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또 다른 조항을 보면 “한미 연합군사령관에 의해 방어준비태세 상황 변화를 포함하는 위기 또는 우발사태가 선포될 시 또는 본 합의각서 제4조에 의해 설립된 합동행정위원회 공동의장의 상호합의시, 주한·미군은 부두합동조정단으로부터 해군부두의 사용 및 일정조정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이양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기를 도입하거나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군 관련 사안들이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성역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관련 기사들에는 유독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더군요. 주로는 ‘제주도는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 류의 힐난조들의 댓글이구요. 이에 대해 고창훈 교수는 “군사기지 건설이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국가안보의 문제라면 세계평화섬 정책 역시 한반도 번영과 평화를 위한 국가정책이다. 세계평화섬 정책의 경우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대규모의 현대적인 해군이나 공군기지가 없이 국제 협약에 의해 세계평화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의 도시로 육성해 나간다면 그 자체가 ‘안보’ 정책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 평화의 섬 개념은 그 자체로 비무장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서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대립구도의 역학관계 속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중립화’ 또는 ‘비무장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연구발표(제주발전연구원)도 나와 있으며, 문정인 전 동북아시아위원장도 “평화지대로서 ‘평화의 섬’은 제주도 전체를 비무장지대화 할 뿐 아니라 군사적 목적의 선박 및 항공기의 기항과 기착을 금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서 제주를 ‘평화창출 전진기지’로 부상시켜야 한다.”고 했었지요.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가 양립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이들은 평화의 섬의 기본 개념조차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는 총이나 칼로만 지켜질 수 있다고 하는 안보관은 무기도입경쟁과 군비증강만 불러올 뿐입니다. 국가안보의 패러다임을 새로 짜야만 할 때죠.

제주도는 유독 아픈 역사를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일제의 태평양전쟁 공군기지(3)로 사용되기도 했고, 4.3 항쟁도 있었구요.

제주도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는 가능성과 위험성을 다 내포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위험성이 더 많았죠. 예를 들어 일제 말기 일본이 제주도에 7만 명을 결집시켜 최후의 결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만약 미군이 실제로 오키나와를 점령한 후 제주를 공격하면 최소 1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을 거예요. 오키나와에서 12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니깐요. 또 이승만 정권 시절에는 미국에 영구 기지로 제공할 것을 검토했었다고도 해요(4). 또 1949년에는 중공군과 싸우던 장개석 정부가 제주도의 해, 공군기지를 제공해달라고 이승만 정권에게 요구한 사실도 있지요.

사실 시설이 한번 지어지면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 속성상 계속 확장되어 갈 것이구요. 다시 말해서 제주의 100년 미래를 결정지을 수도 있다는 문제라고 봅니다.

제주도가 갖고 있는 가능성의 미래는 바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 동북아 평화를 일궈나갈 수 있는 미래입니다. 아픈 역사를 극복해 온 제주도민들이 평화의 담론을 계속 형성 확대해 나

갈 수 있도록 제주 해군기지, 공군기지 건설은 완전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1) 1946년 12월 20일자 자유신문 “만일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는 자주독립국가를 하루빨리 건설해 이 곳의 자랑할 풍물을 가지고 ‘세계의 관광지’로 만들지 않으면 미친 개 눈에는 똥덩이만 보이는 격으로 호전(好戰)하는 무리의 눈에는 요새로만 보이기 쉬운 까닭이다”에서 인용.

2) 2007.1.20 서울 신문 “실제 각종 밀리터리 사이트에서는 국방개혁이나 차기 전투기 사업, 해군의 이지스함 도입 등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첨예한 논쟁이 벌어진다. 홈페이지를 통해 국방예산 증액이나 차세대 무기 도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오프라인 상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기도 한다. 2005년 일군의 마니아들이 벌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 지지 시위가 대표적이다.”

3) 안덕 지역에 인접한 알뜨르 비행장 유적은 일제시대 군사유적으로 문화재청이 근대문화유산 등록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곳에 전략공군기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공군이 이를 반대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4) 제주의 소리 2005.3.24 “이승만 ‘제주도를 미군 영구기지화 하겠다’ 1948년 이승만-드래퍼차관 비망록...미군, 해방직후부터 제주에 군사기지 건설 야욕.

2006년 가을, 서울에서 평택을 이야기하다  
제1회 평화 영화제 ‘백 더하기 백’을 열다

서울평통사 사무국장 황윤미

2006년. 서울 평통사가 네 살이 되었다. 대중조직이라면 당연히 대중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할 터인데도 쏟아지는 실천 현안과 상근인력의 부족으로 그간 이렇다 할 대중사업을 벌여오고 있지 못했다. 올해, 어떻게든 서울 평통사에 맞는 대중사업을 발굴해보겠다는 소박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던 중, 안동 평통사에서 개최한 인권 영화제 개막식에 다녀오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서울 평통사도 영화제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 평통사의 전형적인 대중사업으로 발전시켜보겠다고 시작한 영화제의 주제는 ‘평화’였다. ‘인권’에 관한 영화제는 많이 준비, 진행되고 있고, 평통사가 활동하는 영역으로 봤을 때도 ‘평화’가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업 담당자인 최문희 국장의 참신한 생각으로 ‘백 더하기 백’이라는 영화제 제목도 정했다. 백 명의 개인 후원와 백 개 단체의 후원으로 소요 경비를 마련하고, 남는 것은 평택 지킴이로 활동하다가 구속된 회원의 변론비용에 보태기로 했다. 게다가 ‘백’은 평화를 상징하는 빛깔이자 평화를 사랑하는 한민족의 색이기도 하다. 민노당 용산지구당에서 영화제를 연 곳이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찾아가 장소를 둘러보았는데 시설이 매우 좋은데다가 박종철 열사 분향소도 있고, 전시나 답소를 나눌만한 충분한 공간도 있어 흡족했다.

개인과 단체의 후원도 순조롭고, 장소 섭외도 끝나 부랴부랴 영화 선정하고 팸플릿 찍고, 회원을 비롯 하여 단체와 후원해준 분들께 소식지와 영화제 팸플릿 발송까지 끝냈는데, 갑자기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에서 장소사용을 불허한다는 통보를 해왔다. 8월 말에 장소를 알아보고, 9월 초에 허가를 받았는데 영화제를 한 달도 채 못 남긴 9월 28일에 불허통보를 해온 것이다. 평택 이야기를 다룬 다큐 <대추리 전쟁>을 문제 삼은 것이다. 불허통보 직후는 다른 해보다 유난히 긴 추석 연휴였다. 긴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 날부터 서울 평통사는 경찰청과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 그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일일이 하기엔 지면이 부족해 생략한다. 경찰청과의 싸움은 결과적으로 평화 영화제 ‘백 더하기 백’을 제대로 홍보하는 선전의 장이 되었다.

경찰청과의 싸움을 통해 ‘평택 대추리 이야기’를 열린 공간에서 목청껏 외쳤던 것은 지금 생각해도 참 잘한 일이다. 한반도 남단에서 평화를 지키려는 아름다운 뜻이 가장 치열하게 응집된 ‘평택 이야기’가 평화 영화제의 중심 구호가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현실이, 한미동맹의 불평등이 만들어낸 역설이기도 하다.

경찰청과의 싸움에만 주력하려던 것은 아니지만 뜻하지 않은 경찰청의 과잉반응과 각종 언론의 문의 및 취재에 응하느라 영화제를 세심하게 준비하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다행히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어 큰 차질 없이 영화제를 끝낼 수 있었다. 영화제를 치르면서 이렇게 우리 둘레에는 고맙고 좋은 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 서울 평통사를 아껴주

시는 마음, '평택 대추리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 평화를 지키겠다는 의지는 하나로 통했고, 평화 영화제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것이다.

큰 차질은 없었지만 아쉬움은 많다. 급하게 찾느라 어쩔 수 없었지만 장소가 영화제를 열기에는 적절치 못했고, 모든 관객의 입맛에 맞출 수는 없겠지만 영화 선정에도 좀 더 세심했어야 했다. 특히 여러 회원들이 둘레의 친구나 친척을 많이 데려오도록 모아내지 못한 점은 꼭 극복해야 할 부분이다.

그 동안 우리 평통사는 정세의 요구에 맞는 내용을 발굴하고, 전문적 내용축적을 통해 근거 있는 문제제기와 대안제시, 그리고 헌신적인 투쟁을 해왔다. 우리의 활동이 평화와 통일에 일정하게나마 기여를 해왔다고 자부한다. 대중사업은 이러한 평통사의 활동을 대중에게 알려내는 선전의 장이고, 나아가 보다 많은 대중과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활로를 열어나가는 통로다. 제 2회, 제 3회, 평화 영화제를 통해 우리의 활동을 서울 시민들께 널리 알려내고, 나아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전쟁, 분단, 고통과 싸워 승리할 때까지 계속될 평화 영화제가 서울 시민들의 마음속에 평화의 싹을 틔우길 소망해본다.

“평화를 택하라!”  
제1회 부천 평화카페

부천평통사 대중사업부장 박숙경

부천 평통사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제1회 평화카페가 2006년 12월 2일(토) 오후 5시 30분 부터 부천 근로자 종합복지관 3층 대강당과 1층 식당에서 열렸다.

그동안 부천평통사는 평통사의 매 실천에 대한 결함과 의지에 있어서 언제나 모범적이었다고 생각하지만 대중과 함께하는 실천사업에 있어서 늘 부족함을 느껴왔었다. 그러다가 인천 평통사의 평화카페에서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 그 가능성의 희망을 가지고 그저 흉내내기가 아닌 좀더 보완, 발전시킨 대중실천으로서 제1회 평화카페는 기획되었다.

평택미군기지확장문제, 북핵문제, 한미 FTA를 포함하여 각 생활 현장에서 평화란 주제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부담없이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시작으로 기획된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하는 제1회 ‘평화카페’는 1부에서 평화라는 주제를 노래,영상,울동,시,춘극,연주 등의 형식을 빌어 표현하고 부족한 부분은 2부에서 이야기를 통해 나누며 이땅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한 서로의 마음을 모아보는 것으로 풀어보고자 했다. 또한 주변행사로 벼룩시장,전시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결합하여 회원 전체가 준비하는 편안하고 재미있는 사업으로 자신감 넘치는 사업작풍을 만들어보고자 했다.

준비팀을 구성하고 한 달 반에 걸친 준비과정...

회원들로 구성된 홍보팀에서 포스터, 티켓, 초대장이 나오고 카톨릭대학 울동패 무천을 섭외하는 과정이 있었으며 평화카페 홍보를 보고 노동만화 네트워크 ‘들꽃’에서는 전시회를 함께 해도 되겠냐는 참여 요청까지 들어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청소년 단체 ‘꾸마’ 섭외에서는 실패하고 말았다. 하지만 다른 대안들을 찾아가며 열심히 준비를 하였다. 회원들은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모여서 노래연습, 춘극연습을 피곤한 기색없이 즐겁게 하였다.

공연장소를 꾸미기 위해 사무실에서 준비 할때는 어떤 회원이 본인은 계속 술만 마시며 다른 회원들에게는 잔소리를 계속하는 탓에 다른 회원들도 어서 마치고 술을 마셔야겠다는 생각으로 약속된 시간보다 훨씬 일찍 일이 끝났다는 후문이 있었다. 그래서 잔소리한 모 회원에게 오히려 고마워 했다고 하는데 정말인지는 확인이 안되었다.

또한 참가자조직이 착실히 진행되었으며 회원들의 집을 털어 벼룩시장도 준비되었다. 행사 당일 모든 회원들이 달려들어 포스터 벽보작업, 음식준비, 공연장소꾸미기, 리허설 등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아름다워 보였다.

그래 그것이다, 이번 평화카페를 성공하게 한 이유! 또한 가장 큰 성과는 회원 전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만들어낸 사업이라는 것! 다같이 애썼고 다함께 해서 보람이 컸다.

이번 평화카페를 계기로 신입회원 두명을 맞이하였으며, 결합한지 얼마 안되는 회원들에게는 제 역량을 높이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지역의 다른 단위와 인연을 확대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다. 모처럼 회원들이 밝고 힘있는 모습으로 뒤풀이를 늦게까지 하게 된 이유도 서로에게 힘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부족한점, 한계...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진 않지만 부득이 찾아보자면, 기획의 전체적 흐름이 선명하지 못하여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지 뚜렷하지 않았으며, 주제별 표현에 깊이가 없었다는 것이다.(결정적 한계가 아니었나 싶다.) 회원들 다수가 실무일을 하다보니 참가자들을 챙기는 일에 소홀함이 생긴 점과 진행전반을 점검하고 체계화하는 일에 부족함이 드러났다.

이번 평화카페를 계기로 다음엔 좀더 깊이 있고 보다 창조적인 평화카페를 만들어 낼 수 있겠다 싶다. 그리고 앞으로 회원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내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준비하여 힘찬 평통사의 활동이 되도록 하여야겠다.

「분단의 아픔을 통일의 기쁨으로」  
인천평통사 DMZ 평화기행 다녀왔어요!!

인천평통사 통일분회 이종일

인천평통사에는 한반도 통일에 대해 공부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 활동하는 분회모임이 있다. 이름하여 통일분회. 정식 이름은 부싯돌이다. 대략 떠오르다시피 통일의 부싯돌이 되자는 취지에서 붙여졌다. 어찌보면 촌스럽기도 하다. 왜,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라이터’라든지, ‘부르스타’ 같은 이름도 많은데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통일의 불씨를 일으켜야 한다는 절대적 당의성에 동의하고 형식보단 내용에 충실한 모임을 갖자는데 완전 합의하고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리고 여러 활동 중에서도 지난해 가장 의미있게 진행했던 사업이 바로 평화기행!! 통일은 몇몇 사람만이 공부하고 행동해선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더 많은 사람들과 통일을 이야기하고 즐기며 행동할 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린 인천 시민들과 함께 분단의 역사를 체험하며 통일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에서 ‘통일분회’는 사무국과 협의하여, 매년 진행했던 가을 산행을 과감히 폐기하고 10월 29일 분단의 아픔을, 통일의 기쁨으로 만들어 가는 ‘2006 DMZ 평화기행’을 떠나기로 하였다. 준비는 당연히 통일분회 ‘부싯돌’에서 담당. 두달 전부터 분회는 기행준비를 하는 비상모임으로 체계를 변화하고, 기행의 목적과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기획하였다. 강사 섭외와 자료집 준비, 물품 구입, 행사진행 등등... 분회원들과 역할을 나누어 우리는 대중적인 기행을 떠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했던 것이다.

그렇게 공들여 준비했던 통일기행 당일, 우리는 부푼 가슴을 안고 한반도 분단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과주와 철원으로 떠났다. 함께 출발하는 사람들은 인천평통사 회원들과 인천 시민들을 포함하여 50여명 이었다. 기행의 강사로는 사진작가 이시우 선생님이 함께 했다. 과주에서 우리는 처음 도라산 전망대에 올랐다. 전망대 앞쪽으로는 북한의 개성을 포함하여 널따란 평야지역이 한눈에 들어왔다. 사람들은 저마다 북쪽 땅에 대한 신기함으로 망원경을 들여다보며 눈을 떼지 못하였다. 이시우 선생님은 개성을 바라보며 남북간의 교류를 방해하고 있는 유엔사의 오만함을 지적하였다. 잠시 후, 우리는 전망대 앞에 있는 도라산역으로 자리를 이동하였다. 도라산역은 민통선 안에 있는 경의선의 최북단역으로서 북한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기차역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연결이 완료되지 않아 남쪽에서만 운행되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분단의 현실이다.

철원은 군인들의 철책근무로도 유명한 곳이지만, 한민족의 역사적 현장으로 더욱 유명한 곳이다. 일행은 철원에 도착하여 고석정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제 2갱도 견학을 하고 월정리역에 도착하였다. 월정리역은 ‘철마는 달리고 있다’라는 간판이 말해주는 것과 같이 우리 분단역사의 비장함을 더해주는 것 같았다. 철마는 달리게 해줘야 하는데, 우리들 앞에는 여전히 철조망과 군사무기들이 놓여있었다. 그래서인지 이시우 선생님은 월정리역 주변 군부대의 대량살상무기 보관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해주었다. 다른 지역에는 없는 화학무기가 이곳에는 있다고...

설명이 끝난 후, 우리는 조선노동당사를 거쳐 송일교까지 기행을 계속 하였다. 밤이 늦은 시간이었지만, 선생님의 열의와 참가자들의 즐거움이 더해졌기에 모두가 유쾌한 기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참가자들의 소감 발표가 있었는데, 김정녀 회원은 “과주와 철원 지역은 예전에도 기행을 와봤었지만, 큰 감흥을 느끼지 못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이시우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며 생각하다 보니 통일에 대한 절심함이 더욱 커지는 것 같다. 그래서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오면 꼭 참석하고 싶다.”는 의견을 말해주었다. 그리고 평통사 회원의 소개로 함께 참여한 신미옥님은 “남편의 사업 때문에 남북교류에 대한 관심이 있어 참여했는데, 직접 분단의 현장을 보고 역사를 알게 되니 통일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기행에서 큰 배움을 얻은 양 흐뭇한 표정으로 소감을 이야기해 주었고, 참가자 모두는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라는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인천으로 돌아왔다.

기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평가 자리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통일의 기운을 느꼈던 감동을 소중하게 나누었다. 분담의 아픔을 극복하고 통일의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우리 통일분회가 인천, 그리고 전국의 시민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실천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느낀 소중한 자리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더욱 멋진 ‘평화기행’을 준비해야겠다!!

미군기지가 이땅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그 날을 염원하며...

[군산미군기지로 떠난 평화기행]

대전충남평통사 사무국장 유한경

대전충남 평통사는 2006년 10월 28일 군산미군기지로 평화기행을 다녀왔다.

군산미군기지는 기름유출, 비행기 이착륙 소음 등 오래전부터 심각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미군기지이다. 이 기지는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에 따라 대북선제공격을 위한 기지로 변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F-117 스텔스 전폭기, F-15E, 아파치 롱보 헬기, PAC-3 미사일 등 최첨단 공격용 무기가 배치되고 있으며 주민들에 따르면 새만금 간척지 1천만평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군산미군기지로의 평화기행은 대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미군기지가 어떻게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생활적 피해를 주고 있으며, 환경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지 체험할 수 있었다. 또한 천혜의 넓은 갯벌과 가을, 겨울이면 철새가 날아들어 장관을 이루는 군산 앞 바다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배우고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

어린이를 포함하여 총 23명이 함께 한 이번 기행은 기지주변을 돌아보는 것 만으로도 그 심각성을 생생히 볼 수 있었다. 인근 마을회관 옥상에서 들여다 본 기지에는 위험천만한 탄약고, 엄청난 소음의 원인이 되고 있는 비행기 활주로와 격납고가 마을과 철조망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위치하고 있었다. 또한 이미 미군기지 비행기 유도등으로 침범당한 갯벌에서는 주민들이 불안한 생계나마 이어가기 위해 칠게잡이가 한창이었다.

이번 기행에는 홍성YMCA 생태모임에서도 함께 참가하여 더욱 뜻 깊었다. 이 모임 회원으로 있는 김은경 님은 “여기와보니 우리가 화약고 위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미군기지가 우리의 생태와 환경을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평화와 생명을 위협하고 있음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갯벌과 기지를 둘러본 후 느낀 점을 직접 버튼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느낀점이 정말 다양한 버튼으로 형상화 되었다. 평화를 위한 승리의 표시로 자신의 두 손가락을 그려 넣은 버튼, 윤재호(초등 1년) 어린이가 제작한 “평화를 위하여”를 써넣은 버튼, 만화 캐릭터를 그려놓은 버튼 등... 여러 가지 색으로 그리고 색종이를 오려 붙이고 어른, 아이 구분 없이 참가자 모두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이어 군산의 석양과 미군기지 정문을 뒤로한 기념촬영을 끝으로 대전충남평통사의 1회 평화기행을 마쳤다. 미군기지가 이땅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그 날을 염원하며...

전북지역에 평화의 씨앗을  
-익산 통일노래 한마당, 중국 역사기행 평화학교-

전북평통사 홍보부장 최성훈

2006년 한해, 전북 평통사가 진행한 대중사업은 매향리 미군폭격장 직도이전 반대 및 평택 미군기지확장반대 후원주점과 서명운동, 6·15 6돌기념 통일노래 한마당, 중국평화역사기행, 그리고 평화학교이다.

이 사업들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대중들에게 올바르게 알려내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촉발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일반대중들이 각자의 처지와 조건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즉 돈을 가진 사람은 돈으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지식으로, 예술적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술적 힘으로, 몸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원봉사로, 평화를 일구어 나가는 데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데 보다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

후원주점의 경우 티켓발매와 모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마련하였다. 평택과 직도의 영상물과 선전물로 찾아주신 시민들에게 현 상황과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냈다. 참가한 회원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는 반응이었고, 시민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어 좋았다’라는 반응이었다.

서명운동은 회원들을 조직하여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선전물을 전시하고 홍보물을 나누어 주며 평택, 군산 직도의 상황과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모금과 서명을 받았다. 회원들은 실천한다는 즐거움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서명에 참가해준 시민들은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랐다.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어 고맙고 좋은 일을 하는 것에 감사하다’며 작지만 힘을 보탠다는 뜻으로 호응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다.

통일노래 한마당의 경우, 행사를 함께 진행한 회원들은 많지 않았지만 시민들의 참여도는 높았다. 문화 혜택의 기회와 여가시설이 많지 않은 지역적 특성, 더불어 통일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중국역사기행은 매년 여름 독립운동 중국 유적지를 돌아보고 오는 사업으로 한일장신대학교 교수님과 함께 진행해오고 있다. 평통사가 모집하는 인원이 적어 자체적인 사업으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역사기행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반응은 매우 좋아 차후 역사기행에도 참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평화학교는 매년 진행되고 있는 전북평통사의 대표적 대중사업으로 회원들과 지역조직들의 교육에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만, 강의내용과 강사의 지명도로 인해 대중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못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06년 평화학교는 대중적 인지도를 갖고 있는 강사들을 많이 초빙하였다. 강사진으로는 홍세화, 이해영, 김민용, 문정현, 강정구 님이 수고해 주셨는데, 참가자들의 수와 폭이 넓어졌고, 반응 또한 좋았다.

전북 평통사는 내년에 “평화의 씨앗 운동”을 대중적으로 벌일 계획이며 이미 06년 하반기부터 시작하고 있다.

평화의 씨앗운동은 한반도와 세계에 평화의 숲을 일구어 가기 위하여 하루에 백원, 한 달에

삼천원 이상의 후원금을 CMS를 통하여 후원하거나, 몸과 마음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발휘하는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운동이다.

이러한 대중 사업들은 익산시민들은 물론 지역 단체들에게 전북 평통사가 평화와 통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단체로 인식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회원확대와 재정적 토대를 보다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조금 더 대중적인 사업으로 시민들의 참여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분명 이러한 사업들은 전북평통사의 대중적 근간이 되고 있다.

회원 한명 한명의 참여로 가꾸어 온  
광주전남 평통사의 2006년 한 해  
교육과 패트리어트기지폐쇄, 평택 대추리 농사짓기 등 다양한 사업벌여...

광주전남 평통사는 아직 다른 지부에 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매월 교육을 중심으로 한 모임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 '전문성을 가지고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 등 중요한 사안에 앞장서 일하는 평통사와 함께 하고 싶다'며 무안에서 농민회 활동을 하는 김덕현 님 등 많은 분들이 회원가입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광주공항 인근 서정교회 담임목사인 장현권 회원은 기지폐쇄운동에 앞장서 싸워왔으며 광주전남 평통사 또한 '광주공항 패트리어트 미사일기지폐쇄 주둔미군철거' 집회 참여 등 기지폐쇄 운동에도 함께 하였다.

이외에도 무안농민회 통일위원장인 임채집 님이 기꺼이 볍씨 80Kg을 기증해주셔서 회원들이 무안에서 평택까지 직접 올라가 대추리에 직접 볍씨를 뿌려 농사짓기 운동도 벌여내었다.

이렇게 광주전남 평통사의 2006년 한 해는 회원 한명 한명의 참여와 실천으로 가꾸어진 소중한 해이다.

안동시민학교와 해넘이 행사,  
금강산 기행까지  
가장 활발한 회원 활동을 하는 안동평통사

안동평통사는 안동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11월 10일부터 12월 8일까지 5주간 4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안동시민학교 <한반도와 미국, 미국과 한반도>를 진행하였다. 또한 푸짐한 음식과 산행으로 해넘이 해돋이 행사를, 1월 5일부터 7일까지는 금강산 기행을 다녀왔다.

다음은 안동평통사 김창환 대표님이 <강정구교수 강의와 사실-진실-진리>라는 제목으로 안동평통사 카페에 시민학교 후기를 올린 것을 재인용 한 것이다.

“신약 성경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여정은 앎, 깨달음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의 길인지도 모릅니다. 사실을 찾고 진실을 추구하고 마침내 진리를 터득해 낸다면 이를 최선의 삶이라 일컬을 만합니다.

우리는 이른바 먹물 먹은 사람들, 곧 지식인이 사실을 외면하고 진실을 왜곡하면서 진리 저편에서 곡학아세하는 부류들이 적지 않은 세태를 보고 삽니다. 그들에게는 등 따습고 배부른 삶이면 자족하는 사람들입니다.

학자적 양심과 지행일치의 삶을 구하다가 환난을 자초한 강정구 교수는 예사롭지 않은 지성이십니다. 우리 민족의 지성 리영희 교수가 활동을 그만두며 당신이 소장하고 있던 서적과 자료를 강정구 교수가 소장으로 있는 평화통일연구소(평통사 부설)에 물려주신 것은 그만큼

당신의 뒤를 이을 후학으로 신뢰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강 교수가 친미를 넘어 숭미노예주의나 공미주의에 빠진 미국통 학자들이 득세하는 실정에 한미관계, 주한미군, 군축, 평화협정 등의 문제를 하나의 학문 영역으로 체계화한 공적은 평가 받을 만합니다. 2시간 반의 열강은 60명이 훌쩍 넘는 참석자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충분한 자료와 사례 제시, 정연한 논리 전개로 당면한 북핵, 미국의 패권 전략, 한반도 평화 정착의 전제로서의 미국의 책임론, 나아가 진보 진영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명쾌한 분석과 대안을 풀어 놓았습니다.

분단 60년사에서 끊임없는 전쟁의 위기에 처해 왔던 사실, 그 원인이 거의 미국의 지배 정책에서 나왔다는 진실과 우리가 꿈꾸는 궁극적 진리가 평화임을 웅변해 준 강좌였습니다.”

| 평화비둘기 |

바다여, 바다여, 우주 전쟁의 장 이어!

뉴욕, 미술인 최성희

12월 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주 항공 국방 회담에서 한 미 국방부 관계자가 미 정부는 올 10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의 연간 재정에서 약 200억 달러의 무기 수출로 이득을 볼 거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사상 두 번째 최고를 기록했던 작년 수준과 비슷하게, - 최고는 300억 달러, 1993년 걸프전 직후 - 이란과 북한 인접 지역의 국가들이 그 주요 수입국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 일본, 한국, 대만의 이름이 보인다. 심지어 피점령 당사자국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까지 가장 비밀스런 이스라엘은 이름 자체가 아예 삭제되었지만 미국의 최근 동맹국이 된 인도의 이름도 보이고...

군산복합체 국가인 미국의 제 1 수출은 다름 아닌 무기이다. 그것이 바로 왜 공화, 민주를 막론하고 지역의 투표로 기생하는 미 국회의원들이 자기 주에 무기 산업을 유지하려 경쟁하고, 전쟁을 지지하는 것을 넘어 '조립하고' 국방비용을 늘리는 데 주저함이 없는 이유이다. 레이건 당시 CIA 간부로서 이란-콘트라게이트 사건의 한 주역이자 니카라과 전멸 주장을 했던 로버트 게이츠가 새 국방 장관이 되다니.

미 전략 사령부, 우주 명령국 회담 등의 화려한 각테일파티와 록히드 마틴, 보잉, ATK, 제너럴 다이내믹스 등 무기산업체의 만족스런 웃음 뒤에는 레이건의 80년대 우주 전쟁 구상, 그것을 구체화한 클린턴의 National Missile Defense(NMD, 미 본토 방어)와 Theater Missile Defense(TMD, 미국의 전략적 이해가 걸려 있는 미국 외 지역 방어) 개념이 있었다. 우주를 지배하는 자! 지구를 지배하리니... 1996년 클린턴 당시 발표된 Vision 2020의 주 내용이다.

1991년 걸프전은 인공위성을 이용, 첨단 레이더가 달린 바다 위 미 이지스함의 발포로 시작되었고, 이는 우주 전쟁의 첫 서막이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의 첫 발포 역시 바다였다. 이란의 바다는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이 장치된 미 군함의 인근 국가 연안 정박으로 위협받고 있다.

일본, 대만, 한국의 연안에서 바다는 미국의 전역 미사일 방어 Theater Missile Defense (실체는 공격인!)의 거대한 '장'이 돼 가고 있다. 미국의 석유와 세계 패권이해가 달린 이 중-극동 연안으로부터 비극은 만들어지고 있다. 65만 명 이라크 인들의 죽음, 대낮에 살해되는 필리핀 평화 활동가들, 그리고 문자 그대로 맨 손으로 일군 땅을 빼앗기는 평택의 농민들!

'우주의 무기화와 핵화에 반대하는 전 지구적 모임'(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and Nuclear Power in Space, [www.space4peace.org](http://www.space4peace.org), 이후 GN으로 표기)의 조직가인 브루스 개논은 미 북동부 메인주 브런즈윅에 산다. 근처 배쓰에는 제너럴 다이내믹스 소유인

Bath Iron Works(BIW) 공장 지대가 항구를 끼고 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미 최고 무기 업체 록히드 마틴의 이지스함 (순양함은 1개당 약 12억 달러, 구축함은 1개당 약 10억 달러)의 군함 계약 업체이다. 브루스 개논의 소식에 의하면 일본 요코스카 연안에 있는 이지스 구축함(Aegis Destroyer)은 BIW에서 건조되고 있으며 스탠다드 미사일 요격기와 패트리엇 미사일 요격기가 곧 장착될 것이라 한다.

2004년 12번째 GN 연간 모임은 4월 23-25일 바로 그곳에서 있었다. 약 250여 명의 미주 각지와 일본, 호주, 영국 등 전 세계 각지에서 온 평화활동가 들은 간단한 첫 대면을 가진 후 BIW 앞에서 항의 시위를 전개했다.

말로만 들던 이지스 구축함의 실제 건조 지대라니! 가까이는 갈 수 없었지만 멀리서 보이는 BIW 곳곳에 흥분을 가눌 수 없었다. 가도 가도 끊임없이 길었던 그 연안! 그곳에는 일본인 활동가 사토미 오바의 기억이 있다. 히로시마가 고향이었던 그녀는 이듬해 안타깝게도 암으로 사망했다.

BIW 항의 시위에서 가장 큰 충격은 그 배를 건조하는 노동자들이 생계가 우선인,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다. 활동가들이 무기업체를 태양, 바람 에너지 또는 다른 평화적인 생산 업체로 전환하자는 내용의 유인물을 건네려 애쓰는 동안, 경찰과 공장 간부들은 보이지 않는 감시로 퇴근하는 노동자들을 시위대로부터 떼어 놓고 있었고 노동자들은 도망치듯 공장을 빠져 나갔다. 그러나 길 건너편 노동자 전용 건물에서는 많은 이들이 2층 베란다까지 나와 몇 시간이고 지속된 시위를 멀찍이 지켜보았고 그것은 나를 비롯한 많은 활동가들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9월 브루스 개논이 메인 동지들과 함께 이라크 철수를 주장하며 열흘간의 단식 투쟁을 BIW 등에서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1992년 GN을 설립, NASA의 핵전력을 우주에 띄우려는 시도를 비판해 왔던 그와 지인들의 시도는 2006년 NASA의 태양 에너지 선회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제 더 큰 과제가 남아 있다. 부시가 2006년 하반기 발표한 새 우주 정책은 공공연한 우주의 핵사용 외에도 적대적 공격용 위성 사용 예고, 이를 금하는 국제법등의 무시로 파란만장한 미래를 예고한다.

2007년 1월은 우주의 핵무기화를 금지하고 우주의 국제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는 외기권 우주 조약 (Outer Space Treaty)이 40주년을 맞는다. 또한 조약에서 군사화와 무기화를 구체적으로 막는 개선이 필요한 때이다. 미국 정부는 이것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다. 이것은 과연 먼 우주의 일일까? 아니면 인공위성을 이용, 중국과 북한을 노리는, 요코스카 연안의 이지스 구축함의 미래 공격은 우주의 군사화와 무기화의 은밀한 준비와 함께 오는 것일까?

생명이 탄생한 바다에서 죽음을 시작하는 미국의 우주 정책을 무효화하는 우리의 작은 첫 걸음은 무엇일까?

광고이다. 2007년 3월 23-24일 양일간 독일 담스타트에서 15번째 GN회의가 열린다. 10월에는 매년 GN 우주 평화 주가 있다. 누구나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 이모저모 |

얻을 것은 하나도 없다. 한미 FTA

1월 15일부터 한미 FTA 6차 협상이 있었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9명 전원이 협상장인 신라호텔 앞에서 단식 노숙 농성에 들어갔고, 노동자 농민 학생 문화예술인 보건의료인 등 범국민 대책위원회도 장충단 공원에서 노숙 투쟁을 하였다. 터무니없이 비싸질 전기, 가스, 수도요금과 의료비, 교통비, 교육비에 광우병 쇠고기와 유전자 조작 식품을 먹고 살아야 할 미래는 바로 FTA가 불러 올 디스토피아이다.

문정현 신부 서품 40주년 기념미사

지난 12월 26일 문정현 신부의 40주년 기념미사가 대추리에서 열렸다. 평통사에서는 그동안 문정현 신부와 함께 일귀 온 반미연대집회, 여중생관련 투쟁 등을 담은 사진첩을 선물하였다.

대추리의 촛불은 여전히 타오른다

1월 11일 대추리 농협창고. 863일째 촛불행사가 열렸다. 평일이라 그런지 찾아 온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는 여전하다. 다만 '새로운 대추리'와 관련하여 정부와의 '대화'에 대한 김택균 사무국장의 긴 설명에 간간히 한숨이 나온다는 것. <기지축소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반영하라. 마을공동체를 유지하며 새로운 대추리가 형성된 후에 다같이 이주하자. 기지 이전이 5년정도 늦어지는 만큼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농지에서의 농사를 보장하라.> 등이 농민들이 요구하는 소박한 내용들이다. 당장 1년 후조차 장담할 수 없는 정부는 '안돼'만을 앵무새처럼 읊조릴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방예산에 대한 평통사의 의견서'와

'효순 미선의 참혹한 사고 사진'이 국가기밀?

지난 1월 11일 검찰은 강순정 선생을 간첩혐의로 기소하였다. 이복이 고향이자 여든이 다된 노인이 저지른 '간첩질'은 효순 미선이 미군 장갑차에 압사당했을 때의 사진들과 평통사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방예산 의견서 등을 캐나다의 지인에게 전달했다는 것. 인터넷에 완전 공개된 자료를 두고 국가기밀 누설 혐의를 뒤집어씌운다면 대한민국 네티즌의 대부분이 '간첩질'을 하고 있다는 것 밖에 안된다.

정권 말기 혼란을 틈타 국가정보원과 공안검사 세력의 밥그릇으로 챙기기로 밖에 볼 수 없는 이번 사건은 낡은 시대의 유명인 국가보안법이 끊임없이 부활을 꾀하고 있으며 때문에 반드시 철폐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평통사 후원금 모금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500여만원의 후원금은 평통사의 여러 실천 사업에 소중한 사용될 것입니다.